

부터 寺刹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固城 玉泉寺의 在銘飯子와 銀入絲香爐

鄭 永 鎬

慶南 固城郡 介川面 蓮華山 玉泉寺에는 寺寶로 數點의 遺物이 傳承되 어오는데 그 中 左記 二點을 紹介하려 한다.

一、在銘飯子

銅製로서 鼓面은 片面 뿐인 韓國禁口의 一般型이다. 裏面에는 幅 六·五 cm의 短緣이 斜面으로 內付되었는데 彫飾은 없으며 口緣(口徑 四二 cm)에 는 太細圓條가 突起되었고 中空일 뿐이다. 表面은 徑 五五 cm인데 太細五 重圈內의 撞座(徑 三〇 cm)는 다시 太細三組線으로 區分되어 中央(徑 一 六·五 cm)에는 蓮花子房에 六顆가 있는데 細二線으로 둘러고 그 外周邊 에는 重瓣蓮花紋을 들었다.

撞座의 外圈은 太細三組線으로 區分되었고 그 內圈은 無紋이며 밖에 는 唐草紋을 淺刻하였다. 側面(幅 一四 cm)에는 中央에 太細三組線一條가 周回하여 左右面으로 區分되었고 上部에 大·小三耳가 달려 있다. 記銘 은 側面에만 있는데 兩小耳間의 帶條左便에 四行으로 一八六字가 陰刻 되어 있는 바 字大는 一——一·五 cm이며 楷書로서 深刻되어 있지 않다. 그 全文은 다음과 같이 判讀되었다.

「高麗二十三年壬子四月十二日 在於京師工人家中鑄成智異山安 養仕之飯子入重六十餘斤同願施主者」(以上 第一行 四十七字)

「樞密院右副承宣孫挺烈尙書皇甫琦校尙書俞承錫華嚴業三重勝壽大選 景興知識正之故上將軍奇弼宜之嘉偶珍原郡夫人吳氏」(以上 第二行 五十四字)

「郎將金伯龍之嘉偶樂浪郡夫人崔氏同文院錄事鄭常之嘉偶海陽君金氏學 錄朱埴之嘉偶金氏比丘尼清惠等此根幹外鐫銖之單甚多故不具錄」(以上 第三行 六十字)

「工人別將同正韓 仲叙 棟梁道人宗一 負擔人上座普心使用長存」(以上

第四行 二十六字

以上 銘文에서 「高麗二十三年壬子」①는 高宗三十九年(一一五二 年)에 該當되며 「安養仕」②라는 施納의 寺院名과 施主名 등이 注目 되었 다. 現在 此品은 同寺에서 飯鍾으로 使用되고 있어 保存이 良好하다. 他 例에 比하여 큰 便이며 彫飾도 流麗한 麗代飯子の 優品이라 할 것이다.

註 ① 高麗史卷二十一 高宗二「……明宗二十二年壬子正月壬戌生……」 에서 壬子는 回甲年이다.

② 東國輿地勝覽卷之三十 晉州牧佛宇條에 「安養寺」가 보이는 바 安 養仕를 社의 不明한 刻字로 생각된다.

二、銀入絲香爐

高杯形으로서 身臺의 二部로 區分된다. 爐身은 鉢形인데 上部에는 幅 五·三 cm의 口緣이 달려고 그 裏面에 點線으로 「宜寧 修道寺」의 銘文이 있으며 下底에는 二段의 받침形圓帶가 만들어져 있다. 銀入絲의 彫鏤는 爐身의 四處에 花紋圓圈을 配置하고 그 안에는 鳳凰紋을 入絲하였으 며 間地와 口緣上面에는 唐草紋을 滿鏤하였다. 爐身下部의 圓形받침上段에 는 太線으로 重瓣蓮花紋을 둘러고 各瓣內를 細線으로 裝飾하였으 며 下 段은 四葉紋과 圓紋으로 滿鏤되었다.

臺座는 上促下寬의 柄部를 가진 圓盤으로 下底가 內空이며 그 頂部에 서 爐身內底와 連結되었는데 圓盤上面에는 다음과 같은 點線銘文이 있 다. 「嘉慶二十一年丙子四月晉州玉泉寺施主 佺油契化主 晉沾呂性」(以上 一 行 二十六字) 以上에서 「嘉慶二十一年丙子」는 清仁宗二十一年(一八一六 年)로서 純祖十六年에 該當된다. 한편 이 臺部에는 銀入絲의 彫鏤가 全 無한데 그 黃銅色이나 形態 등으로 미루어 보아 現臺座가 原來當初의 것 이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爐身의 彫鏤나 받침形手法 등으로 보아 麗代의 國寶香垵인 表忠寺와 奉 恩寺所藏品과 同系에 屬한다 할 것이며 製作年代는 麗末鮮初로 推定 되나 그 後代에 臺座의 破失로 上記年代(點線銘文)에 新造한 것으로 보 인다. 實測值는 爐身高 一四·二 cm 上徑 二七·八 cm 口徑 一七·二 cm 臺座 高 八·二 cm 圓盤徑 一五·八 cm

〔註〕黃壽永：「高麗銀入絲香境的 新例」(表忠寺藏)「美術資料」第一號(一九六〇年)

「春恩寺의 香爐와 梵鐘」……「東國史學」第五輯(一九五七年)

資料

忠南 大德郡內 先史遺跡 調査

李 殷 昌

一、支石墓

1、嶺岑面 大井里 支石墓

大井里丘陵臺地에 「암소바위」라 稱呼하는 支石墓 四基와 이 곳에서 北쪽으로 約二km 地點인 大井里 元堂洞 「질마고개」(鞍形丘陵)에 「질친바위」라 稱呼하는 支石墓 二基가 있다. 前者 四基中 第一號 支石墓만이 完存하는데 三角盤石으로 된 撐石을 버개 모양(枕形)같은 二個 支石이 떠받치고 있다. 모두 南北線에 長軸을 두고 있고 第一號 支石墓의 形態로 보아 南方式에 屬하는 것으로 推定된다.

2、杞城面 五里 支石墓

五里山一番地 山麓河川邊으로 通한 洞路工事中에 巨石下에서 石器數點이 出土.

① 有柄式石劍 一個……黃灰色頁岩磨製(現存長 四〇cm)

② 有柄式柳葉形石鏃 一個……黑色粘板岩磨製(現存長 一四cm)

③ 有莖式柳葉形石鏃 二個……其一 黑色粘板岩磨製(現存長 一一cm)

其二 灰褐色泥板岩磨製(現存長 八·七cm)

3、杞城面 坪村里 支石墓

坪村里 진벌(泥坪)洞 臺地路邊에 南北으로 長軸을 두고 있는 不整形巨

石이 있으니 「道託바위」라는 傳說과 側面의 「吉坪」이라는 字銘을 지니 洞民들이 怪異하게 생각하는 對象이 되어 있는데 이는 支石墓로 推定된다.

4、杞城面 佳水院里 支石墓(本紙 二一六 金武龍 紹介)

二、石槨古墳群

懷德面 瓦洞里(舊懷德)에서 竪穴式石槨墓 十二基를 調査한 바 있는데 이곳 古墳中에는 石槨과 赭褐色土器片 등을 가진 것이 있다.

1、第一號墳……丘陵南斜面에 南北線으로 長軸을 두고 長(南北)一八〇cm 幅(東西)五五cm 現高(深)四〇cm의 石槨으로 四壁을 自然石으로 쌓고 下底는 赤色粘土로 다지고 또 粘板岩板石을 깔았으며 蓋石도 亦是 板石을 덮은 竪穴式石槨墓를 이루었다.

(1) 石器類 (圖面)

① 二段柄式石劍 一個……黑褐色粘板岩磨製(總長 二六·五cm)(圖1)

② 有莖式柳葉形石鏃 二個……其一 灰白色泥板岩磨製(總長 六·五cm)(圖2) 其二 綠灰色泥板岩磨製(總長 四·九cm)(圖3)

(2) 土器片

平底鉢形土器片 四

個……底面未詳한 鉢

形土器片 一個를, 第

二號墳에서 器壁片

一個를, 第三號墳에

서 採集하였는데 이

는 모두 赭褐色無文

土器系에 屬하는 것

이다.

